

상사의 동기부여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는 구성원을 원한다면

## 프로를 만드는 셀프 동기부여

### HSG 프로의 격, 왜 들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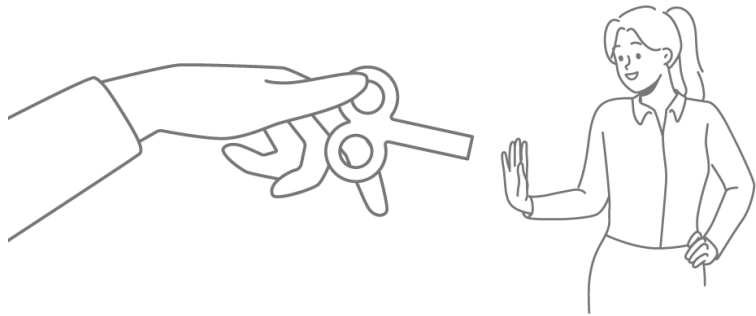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많은 업무를 부여합니다. 신입사원이 아닌 이상 맥락과 방법을 구구절절 설명해주지도 않죠. 알아서 맡은 일에 ‘프로’로서 임해주기를 기대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전문가들은 조직에서의 프로는 ‘셀프 동기부여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의 의미를 찾고, 이것을 잘 해내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들어오는 일을 쳐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는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프로다움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동력을 얻는 방법, HSG 프로의 격 콘텐츠에서 알려드립니다.



###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나요?

<p><b>1</b> ‘프로답게 일한다’는 것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다움’에 대한 설문 결과</li> <li>• 프로는 한마디로 ‘self-motivating’하는 사람</li> <li>• Why, How, What에 대한 답을 얻어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li> </ul>	<p><b>2</b> 프로가 되기 위한 질문 1 - Why</p> <p>이 일을 왜 해야 할까? 일에 대한 열정을 높이기 위한 방법 찾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에서는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다: ‘운명애’를 가져야 하는 이유 3가지</li> <li>• 세상에 나쁜 경험은 없다: 경험을 통해 능력 범위를 넓히는 방법</li> </ul>
<p><b>3</b> 프로가 되기 위한 질문 2 - How</p> <p>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 giver가 아닌 taker의 기대치 맞추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서리에 답이 있다: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 찾고 업무에 활용하기</li> <li>• 의도적 학습이 필요하다: 셀프리뷰와 모델링</li> </ul>	<p><b>4</b> 프로가 되기 위한 질문 3 - What</p> <p>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프로로서 뚝딱하기 위한 자기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격성에 잡아먹히지 않기</li> <li>• Go를 위한 Kill하기</li> <li>• 제 3의 시각으로 보기</li> </ul>

※ 위의 구성은 3시간 기본 모듈이며, 교육 내용과 시간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다르게 구성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나요?



누구에게  
필요한  
교육일까요?



매너리즘에 빠져  
조용한 퇴사를 꿈꾸는  
구성원



한 포지션에서 같은 업무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대리~과장



매사 적당주의로  
일관하는  
구성원

HSG 교육기획실

T. 02-730-3500 E. hsg@hsg.or.kr

문의하기 >